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 오는 18일 화려한 막 올라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제44회를 맞이하는 보성다향대축제는 ‘차소풍’이라는 주제로 관광객 맞이에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차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고, 차를 쉽고 개성 있게 즐길 수 있는 소풍같은 축제라는 콘셉트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차문화 축제인 다향대축제는 차문화 체험·전시·경연, 차마켓 등 8개분야 5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와 축제의 대중화를 이룰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색적인 전시체험 공간인 ‘차산업관’을 신설하여 보성의 차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 광장에는 가족놀이 시설을 만들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꾸몄다.

티아트관과 티푸드관에는 아름다운 테이블웨어와 녹차음식을 전시하여 차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객의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햇차만들기’ 체험은 작년보다 더욱 솔이 13개가 늘어난 총 34개로 확대 설치하고, 차밭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차밭습터도 마련된다.

특히, 청명한 달빛 아래 광장무대에서 펼쳐질 ‘달빛차회’는 지난해보

다 회수를 늘려 3일간 운영되며, 보성차인들이 주축이 되어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북쪽차밭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차 매니아들의 낭만과 개성있는 차자리인 ‘월인천강 차자리’가 진행된다.

이런한 동심의 세계로 이끌 ‘순금차잎 보물찾기’와 ‘스마트폰 축제 스탬프투어 앱’ 등 이색적인 이벤트가 진행되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차박물관 광장에는 녹차로 만든 비누, 녹차 인절미, 녹차 초콜릿 녹차 뷰티케어 등 젊은 층과 외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구성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남도비닷길 회천면 군지마을에서는 아름다운 득랑만 해안투어와 재미있는 속잡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차밭과 더불어 갯벌에서의 즐거움도 함께 선사할 계획이다.

주병석 축제추진위원장은 “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은 마음마다 차를 뒤는 훈김과 차향이 널리 퍼지는 시기이다”며, “싱글러는 5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만점인 다향대축제장에 방문하여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 캠페인 추진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 위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영광군은 지난 11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 캠페인 행사를 영광공용버스터미널과 영광고추특화시장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기계 사고가 봄·가을철(5월~10월)에 집중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 생명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군(농업기술센터·농정과·안전관리과)과 경찰서, 농기계 대리점 등 많은 기관이 동참

했다. 농업기계 사고는 사고 발생건수의 60%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도로 운행 중에 농업기계와 일반 차량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반사 신경 저하 등의 인적 요인과 안전장치 미부착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이날 행사에서는 50대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터미널시장 및 영광공용버스터미널, 영광 5일장이 열리는 영광고추특화시장 앞에 캠페인 부스를 설치해 현수막 게시, 농기계 안전장비 전시와 안전사고 관련 리플릿, 안전반사판 배부와 피켓 및 어깨띠를 착용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했으며, 유관기관 및 버스정류

장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넙어진 안전사고 예방 실천 생활화’ 홍보를 곁들였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대대적 홍보를 위해 영광 군내버스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장소와 주요 교차로 7개소, 농업인이 자주 내방 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입대사업소 3개소(본소, 북부본소, 남부본소), 영광군 읍·면 10개소 등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음주운전을 절대 금하고 야간 운전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 시 사용자 교육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없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함평군보건소는 최근 급격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온도가 높은 5~9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 만성 간질환자나 당뇨병, 습관성음주자 등의 고위험군이 감염 시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지므로,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서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

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또 어·패류를 손질할 때는 해수 대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를 조리한 도마, 칼은 반드시 사용 후에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보건소는 물머리해변, 주포해수욕장 등 관내 해변, 갯벌을 중심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장성군, 전체 경로당 화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장성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안전사고나 화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장성군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전체 경로당 334개소에 대해 지난 10일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각 경로당은 매년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장성군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장성군은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이고,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원이며, 구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원이다. 보험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이다. 한편 장성군의 경로당은 사랑방

기능을 뛰어넘어 ‘실버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성군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찾아가는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을 비롯한 다채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마의자 등 건강보조기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 관계자 2명으로 한 팀을 이뤄 전체 경로당을 월 1회 이상 방문해 어르신들의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며 심뇌혈관질환과 알에 대해 교육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장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옥스팜 트레일워커’ 10km 패밀리 프로그램 성료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인 ‘옥스팜 트레일워커’의 10km 패밀리 프로그램이 3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코스는 구례군의 주요 관광지로 알려진 ‘지리산호수공원’과 ‘지리산호수공원을 상징하는 경관다리를 거쳐 지리산권역의 100여 종의 야생화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지리산공원의 ‘야

생화 테마랜드’를 돌아 출발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로 돌아오는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km 코스이다.

1시간 30분 만에 완주에 성공한 서기동 구례군은 “군민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1년 홍콩에서 시작된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38시간 동안 100km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챌린지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구례에서 두 번째 열렸으며, 옥스팜 트레일워커 참가자와 팀별로 사전 기부연담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은 100%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기금으로 쓰인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형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제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